

## 헬기타고 주상절리 절경 보고 현미경으로 바위 표면 살피고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인증 '마지막 관문' 실사 현장 가보니

광주시 영어 안내서비스·무등산 이야기 등 적극 소개  
 충효동 도요지·공방 등 역사·문화 현장도 둘러봐

“골짜기가 길어 ‘긴골, 장골’로 불렸던 장불재에서 바라보는 입석대와 서석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12일 오전 11시께,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장불재를 찾은 안드레아스 쉴러(독일)·사리나(중국) 현장실사 위원들은 문화해설사가 전해주는 다양한 ‘무등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서도 이들 현장실사 위원들의 모습은 밝았다. 앞서 이들은 한 시간가량 누에봉에서 헬기를 타고 무등산권 주상절리 지질명소를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관련기사 2면>  
 이번 현장실사는 무등산 주상절리 구간을 살펴보는 이날의 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안내하는 광주시 공무원과 문화해설사 등의 표정은 진지했다.  
 공무원 등은 무등산해설서에 디지털기를 가져다 대면 한국어와 영어 등의 언어로 무등산을 설명해주는 음성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고, 무등산을 소재로 한 노

래도 실사위원들에게 들려줬다. 무등산의 지질학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등산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에 무등산의 옛이야기 등도 이들 실사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주변을 오르던 등산객들은 실사위원들을 둘러싼 채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휴대전화와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실사위원들의 눈은 매서웠다. 걸어서 입석대에 오른 뒤 휴대용 현미경으로 바위 표면을 살피고, 바위에 새겨진 한자에 대한 질문도 빼놓지 않고 쏟아냈다. 이번 현장실사가 사실상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실사위원들의 현장 점검은 더욱이 꼼꼼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실사기간 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질교육,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여

부,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번 현장 실사는 일종의 평가이기 때문에 실사위원들은 질문 이외의 말은 아예지만 무등산의 절경을 바라볼 때는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빼듯한 일장 탓에 이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무등산의 절경 중 한 곳인 규봉암을 찾아 그곳에서 무등산의 넉넉한 풍경을 즐기기도 했다. 이어 충효동 도요지 지질명소와 평촌도에공방 등지를 둘러 무등산이 만들어낸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현장실사를 통해 이들은 무등산 주상절리대, 화산 서유리 공룡화석지, 담양 죽녹원 등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를 둘러봤다. 또 13일에는 고인돌 유적지, 적벽 등 화산군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14일에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대나무박물관 등 담양군 중심으로 실사를 진행한 뒤 추가 문답 평가를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이번 현장실사가 끝나면 올 말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에서 이번 현장실사 결과를 심사해 인증 권고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인증 여부는 내년 4월께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2일 안드레아스 쉴러, 사리나 위원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사단이 무등산국립공원 입석대를 둘러보고 있다. 전날 광주에 도착한 이들은 14일까지 무등산 권역에 머물며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를 벌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전공대 설립, 시·도 상생협력 필요”

국회서 광주·전남도 예산정책 간담회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해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이끌고, 들어서는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위치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자칫, 광주시와 전남도가 위치 다툼을 하면 한전공대 건립이 지연 될 수도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12일 서울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운창한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 시·도 관계자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당 박지원·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7명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5000억원을 들여 빛가람에너지밸리 일원에 150만㎡ 규모로 한전공대를 건립하는 방안

지역 국회의원 17명 참석  
 “입지 다툼엔 지연될 수도”  
 市·道 현안사업 협조 요청

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대학구조 조정 흐름과 목표대, 전남도립대 등의 혁신도시 캠퍼스 추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한전공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이 중요하다”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처럼 서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시·도가 협의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한전공대의 위치가 광주인지, 전남인지 논란이 커지면 안된다”고 못 박은 뒤 “혹여 갈등의 목소리가 정부까지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

원들에게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적 가치 규범화,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사업,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등 지역 현안 9건을 건의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248억원), 남구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15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38억원) 등 국고 지원사업 26건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책 건의 10건,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35건 등 45건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기반시설 확충,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여수 경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등이다. 국고지원 현안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조기 확정,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철도 건설 등이 제시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안철수 “제보 조작 책임 통감...자숙의 시간 갖겠다”

정계 은퇴 질문엔 “당 위해 할 수 있는 일 깊이 고민하겠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박우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가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며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자신에게 쏟아달라고 강조하면서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결국 명예 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저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연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킨케어 및 전곡 베헤이션, 아모레 키오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스킨케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